

“〈조선불교총서〉 간행은 한·중·일 프로젝트”

혜원 스님, 동국대·동양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밝혀

“1920년대 조선의 찬술문헌을 모은 〈조선불교총서〉 간행 추진은 한국 조선불교회가 주체가 되고 일본과 중국의 불교계가 협력한 프로젝트였다.”

일제 시대 이능화와 정황진이 추진한 〈조선불교총서〉 간행이 한중일의 협력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사진)은 11월 19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제4회 동국대 불교대학·동양대 국제철학연구소 공동 연구세미나에서 미완인 1920년대 〈조선불교총서〉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다.

혜원 스님은 “1920년대 조선불교회가 진행한 〈조선불교총서〉 간행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불교총서취급내용본회귀서목〉을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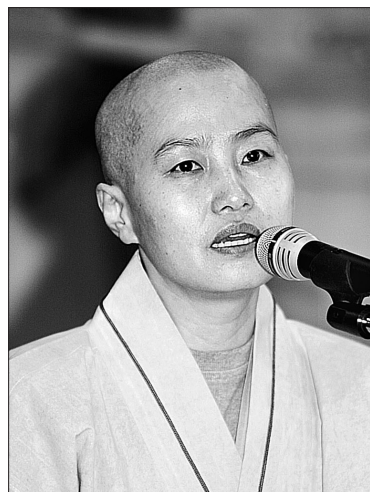
혜원 스님은 〈조선불교총서〉 간행의 중심에 이능화와 정황진이 있음을 들었다. 특히 혜원 스님은 정황진에 대해 주목했다.

혜원 스님은 “1911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발표 후 조선 불교계는 일본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1914년부터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귀서목’ 토대 근거 밝혀 승려 정황진 활동 중심 고찰

일본 불교계 대학에 조선인 승려가 유학하게 됐다”며 “총 13인인 승려 중 조동종 대학에 유학한 이가 정황진”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정황진은 1925년 6월 조선불교간행회의 주무편집원으로 중국불교 중심 인물인 태허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조선



불교총서 간행을 하고 있음과 간행에 도움을 요청한다. 경위와 함께 게재 목록을 보낸 것”이라며 “1928년에는 일본의 대학에서 협력을 자청했다. 정황진의 인연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조선불교총서〉 간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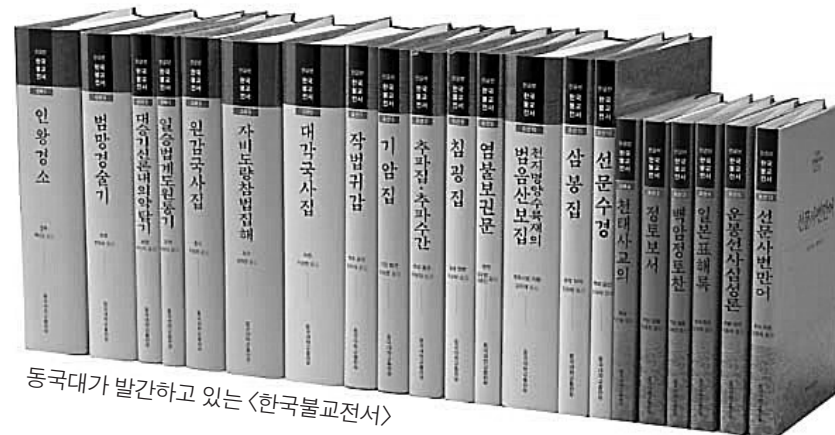
재정적인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스님은 “당시 조선불교계의 중앙승려들은 조선불교총서 간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중앙교무원에서도 원조한 기록이 없다. 1931년, 조선불교간행회에서 두 번째 서적 〈법화명현집〉이 간행됐으나 대표가 일본인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미완이긴 하지만 당시 한중일,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고심하여 발표한 역사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대기 한·일 양국 불교의 변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동국대와 동양대에서 3명씩 총 6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박인숙 교수의 ‘변행심소(遍行心所) 축(觸)에 대한 후자우라 세이분(深浦正文)의 해석’, 고영성 교수의 ‘뇌허 김동화의 불교 인식’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전서〉 50권 출간 눈앞



동국대가 발간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서〉

동국대가 추진하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가 50권 발간을 앞두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올 연말 〈청허당집〉, 〈경허집〉,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연주서기회편〉, 〈법망경보살계본사기 상권〉 등을 출간해 50권을 채울 예정이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간행사업은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한문불전인 〈한국불교전서〉 전14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대작불사다.

동국대는 2010년 6월 1차로 7권을 출간한 이래, 매년 6~7권 씩을 펴내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16년 상반기에 활동과 학술적 성과를 조명하는 기념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청허당집〉은 조선 중후기 불교계 태두로 일컬어지는 청허 휴정스님의 문집이며, 〈경허집〉은 근대 선불교 중흥주 경허스님의 선풍을 드러낸 문집이다.

그동안 〈한국불교전서〉 역주 사업은 불교학과 국문학을 비롯한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학자 배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300권 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은 한글대장경 완간에 버금가는 대작불사”라며 “올해까지 출간될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을 토대로 한국학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

총 300권 대작불사 초석 다져 2016년 상반기 학술세미나 예정

대해나갈 것이다.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출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 발간기념 도서목록’ 팸플릿을 제작해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동국대 출판부는 “전서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 전통문화 창달과 한국불교 중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탑돌이는 불교의식이자 민속문화”

중앙승가대 불탑신앙 조명 세미나 ‘눈길’

타파, 스투파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을 칭한다.

부처님 열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탑은 예배와 공경의 상징조형물로서 무한한 공덕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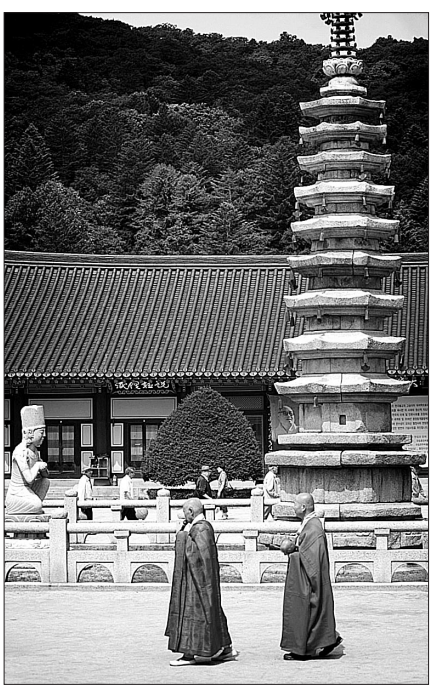
그동안 불탑의 양식과 가람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무형요소인 탑돌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탑돌이 신앙에 대한 고찰이 이뤄져 관심을 모은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은 11월 27일 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불교문화와 사상 속에서의 탑돌이’를 주제로 제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재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불탑신앙과 민속’ 발표를 통해 한국의 탑돌이 의식이 인도불교의식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전통적인 민속놀이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심 학예연구사는 “사찰 내 탑의 의미는 조형물이 아닌 진리의 상징으로, 〈불설시가라월유방예경〉에는 탑을 돌면서 엄불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불탑이 곧 여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학예연구사는 “탑돌이는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의례를 했다는 성격에서 생활문화 중 의례생활에 포함된다”며 “탑돌이는 이미 불교의례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민속문화”라고 강



평창 월정사 8각 9층석탑 탑돌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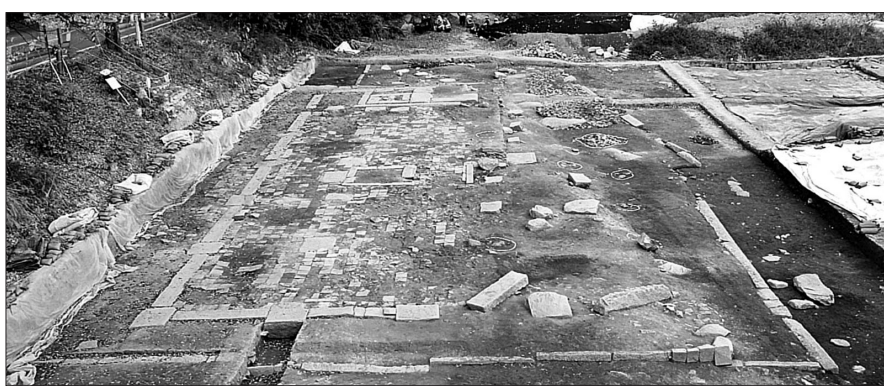
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성우 스님이 ‘불탑신앙의 원형’이란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으며 △중앙승가대 오인 스님의 ‘불탑과 방편사리-경전을 중심으로’ △김동하 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의 ‘신라불탑 부조성에 대한 일고찰-경주지역 불탑을 중심으로’ △일본 불교대학 혜명 스님의 ‘한일 사리장엄 비교-백제와 고대 일본사리를 중심으로’ 등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성주 법수사지서 고려시대 건물 배치 확인

건물터 6개 드러나... ‘법수사’ 기와 등 3000여 유물 출토



9세기 초반 창건된 성주 법수사(法水寺)에서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사역(사찰의 중심이 되는 구역)의 건물 배치가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성주군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4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려시대 족초대 조선시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 6개와 기타 시설물의 흔적을 찾아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곳은 보물로 지정된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으로, 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두고 양쪽에 금당(金堂, 부처를 모신 건물) 터로 짐작되는 건물지가 드러났다. 1호 건물지에는 동서 방향으로 계단과 보도 시설이 있어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동선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당으로 추정되는 2호와 3호 건물지는 바닥에 벽돌을 깔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형태의 대규모 불단을 갖춘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가구를 짜듯이 구성된 가구식 기반(架構式 基壇)과 뛰어난 석재 가공기술로 미뤄 이들 건물의 품격이 매우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 기와, 청동불상 등 유물 3000여 점이 출토됐다. 특히 ‘법수사금당’(法水寺金堂)이라고 새겨진 평기와와 ‘법수사시왕당’(水寺十王堂)이라는 글자가 조각된 청동합 등 사찰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유물이 나왔다.

법수사는 통일신라시대에는 금당사(金堂寺)로 불렸으나, 고려시대에 중건하면서 법수사로 사찰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화층이 발견됐다.

1677년 성주 지역에서 간행된 책인 ‘경산지’(京山志)에는 법수사가 금당 9개, 종각 8개 등이 있는 천 칸 규모의 사찰이라고 기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구인사 생전예수재, 보존 가치 충분”

천태종, 22일 ‘생전예수재 전승·가치’ 학술대회

“구인사 예수재는 참회문화를 사회에 알리는 기능·역사적인 전통문화유산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1월 22일 서울 관문사에서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초강연에 나선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에서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본인이 스스로 공덕을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하겠다는 내용으로 스스로를 참회하는 성찰이 담겨있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사회에서 예수재를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홍 명예교수는 “예수재는 정신적·사상적·신앙적 근거가 되는 경전, 그에 내재된 신앙심을 표출하는 의례집, 의례집에 따른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기능 등 세 가지 문화유산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신앙공동체까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설정’에서 “구인사 생전예수재는 수록재·영산재·예수재가 융합된 의식”이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법파와 전통 불교 의식의 기능을 수용해 천태종의 의례로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천하대도로 일체종교를 초월 만년말법을 지킬 약사미륵 달마묘법 팔품경으로 당신도 부처될 수 있는 불국정토 평화촌으로 남북통일 세계명화종교통일 만든다. 지구촌 천지개벽과 각종 질병을 넘어 만법을 다스릴 수 있는 진광도법 이생에 명부를 천부에 올려 수명이 늘어나 도인, 신선, 선녀 일류스승되는 금강진법의 루진통 대법회

진광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최대이슈 원, 방, 각, 해인도법의 잣대를 얻어 하늘땅 각종 종교에 감춰진 마음이 생명의 빛이 업에 쌓여 수행마장, 기도마장, 병마장으로 말과 글, 염불, 묵탁, 참선, 각종수행으로는 마음과 생명이 들어다니는 현관을 찾지 못하는 초우주에 감추어진 마음에 문을 귀신도 모르는 진법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빛으로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자성, 즉 견성성불을 넘어 노소 학력 나이 관계없이 비구니 보살도 성불 받을 수 있는 초능력으로 하늘에 도법을 부여받아 각종질병과 현재 부리는 신도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빛을보아 도를 통한 도인만이 병겁을 다스리는 인류스승으로 전법사, 포교사, 철학운명사, 건강관리사 자격을 얻어 포교원을 개원하는 일류 스승되는 진광도법 루진통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빛을 보는 도통군자 일류스승 되소서 이경신은 천서없이 허주에 빙의되는 것이며 부처님께 서도 루진통을 하지 않는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신 천하 대도법



가부창치를 시는 달마구입지: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조사

- 입제일 :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해시
- 해제일 :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세면도구,무박 2일
- 입제비 : 10만원 (농협 029-02-167866 광한역)

■ 유불선이 하나로 우주에 빛으로 눈과 두뇌를 열어 영육이 하나로 성불도통하는 묘법팔품경 출간 [값, 삼만오천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 3층 천지공사 유불선 심경신도통회 총본산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용천사 032)502-6625,6619 / 010-9292-3110

○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부평역하차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 부평시장역하차 1번 출구쪽 승강기 타시고 하이마트에서 시장쪽 횡단보도 건너 재래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아울렛C 백화점 3층 용천사